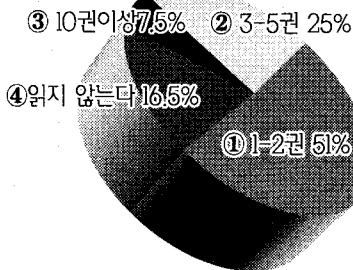


그래픽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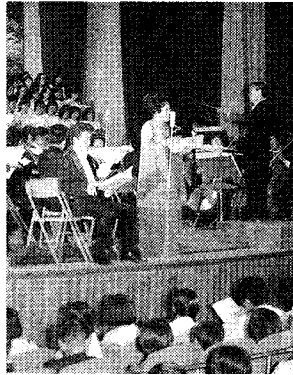
우리학교 학생들의 독서량

우리 신문사는 서울·수원캠퍼스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한 달에 몇 권의 책을 읽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았다.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학교 학생의 절반 이상이 한달에 1권-2권 정도의 책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출판 연구소가 지난 97년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연평균 독서량을 조사한 결과 9.7권을 읽는다는 결론을 볼 때, 성인 평균 독서량 보다는 높은 수치이지만 외국 대학생들과 비교해 보면 매우 적은 양이다. 독서량의 신장이 요구된다.

경희, 그 한 주의 역사



1968. 5.25 제 19회 학생 북상 대회에서 전체 10계급 중 5계급을 합쳐 총합 2위를 기록한 날
1974. 5.30 크라운콘서트홀 개관, 칸타타 '경희 4번째가 송가' 공연 (작사 조영식, 작곡 김동진), 연 사진
1979. 5.31 공대원 돌다방 완공, 대동제 때 공대원 주점은 모두 여기에 있었다.
1995. 5.31 세계 청소년대표자 회의 개최

<1면 기획기사에서 이어짐>

또 지난 축제 기간 중에도 홍보활동을 했던 SK텔레콤은 고리 던지기, 두더취 잡기 등 도박성을 띤 놀이를 홍보 수단으로 사용했는가 하면, 홍보 도우미들의 핫팬츠 차림은 학생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런가 하면 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 때 학교 곳곳에서 좌판을 펴고 상행위를 하는 판매상의 경우 분명 학교 출입이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그 수는 날이 갈수록 줄어줄 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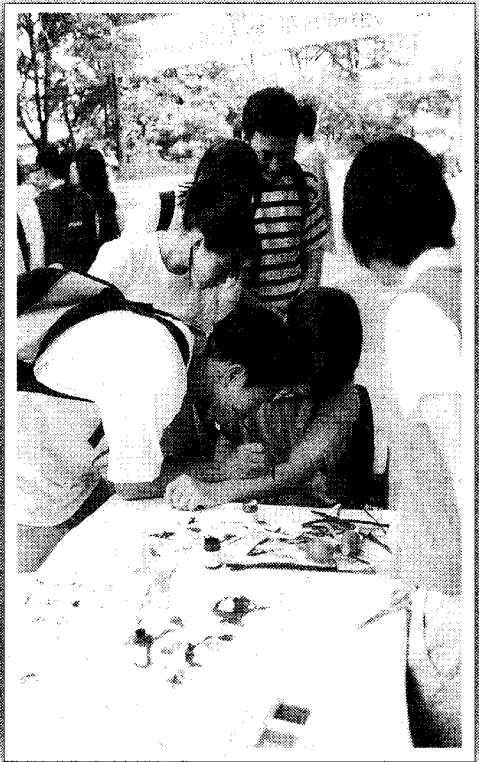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장양식 서울캠퍼스 인북위장은 "업체가 하나 홍보나 판매활동을 신청할 경우, 우선 판매 및 홍보 상품이 학생들에게 유용한 것인지, 가격이 저렴한지 등을 살펴보고 허용한다. 이번 축제의 경우, SK 텔레콤 측이 당초 시연회만 할 것이라는 약정과는 다르게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면서 "앞으로는 기업체의 판매나 홍보에 대한 사후 관리에까지 신경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학내 불법 상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판매상들이 완강한데 단속을 하려면 아침부터 출입 자체를 통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불법 판매상들에 대한 학교측의 입장 또한 이와 비슷하게 "불법 판매행위의 부당성은 알지만 교육기관으로서 판매상을 물리적으로 내쫓을 수는 없는 일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소위 물건을 대한 일차적 책임은 관리가 산 사람에게 있다. 좋지 않은 물건을 팔고 싶어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에게도 잘못은 있지만, 그러한 홍보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믿고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도 책임은 있다. <경남이 기자>

그러나 요즘 같이 홍보가 범람해 자칫하면 소비자가 혼란해지기 쉬운 때, 소비자들의 선택은 누군가로 하여금 조절받을 권리가 있고, 학생들에게 조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 학내 상품판매를 허용하고, 관리하는 집단이 되어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인북위를 비롯, 학내 상품판매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기적이고 책임있는 관리가 필요한 때이다.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정원	서울 캠퍼스 (우: 130-701)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 961-0095, 961-0093~4 FAX 962-7718
주 간	최상진	수원 캠퍼스 (우: 449-701)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서원로 1 741-5701, (교내: 2056, 2860) 전화 (0331)201-2056, 2860 FAX (0331)204-8121
편집장	최수정	
인쇄인	최영희	
인터넷 대학주보	http://news.kyunghee.ac.kr	
인터넷 전자메일	zpiknews@chollan.net khnews@unitel.co.kr	
구독료 / 1년 1만원	구독문의 / 961-0093~0094	

사진으로 보는 '98 봄 대동제



누가 빨리 먹나?

공대인의 밤 행사 중 학생들의 가장 많은 웃음을 자아낸 '짜장면 빨리 먹기 대회'



'비나이다, 비나이다'

개막식 전 서울캠퍼스 정문 앞에 세워진 조국통일 대장군과 민중사랑 여장군. 일부 학생들의 반대 속에 치해진 행사이기는 하나 우리학교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름이 없을 것이다. 장승님들, 우리학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대동제만 갈도록 해 주십시오.

몸은 추워도 마음만은 '호트'

서울캠퍼스 노천극장 주변에서 온 학생들의 인기를 끌었던 두더취 삼총사. 물풍선 던지기와 함께 축제의 감초로 자리잡게 된 두더취 게임, 그나마 맑았던 날씨덕에 감기 걱정은 덜었지만 사정없이 내리 맞은 정수리는 얼얼. 그래도 마음만은 뿌듯하다. 축제네가!



우리학교 춤꾼을 소개합니다

KBS 2TV 일요일은 즐거워 중 '캠퍼스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우리학교를 찾은 개그맨 강호동을 놀라게 한 주인공의 춤추는 모습.

좀 더 가까이

축제를 맞아 우리학교를 방문한 연예인과 각종 공연을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보고 싶은 욕심덕에 무대 앞의 학생들로 꽉 메워지고... 학생들의 열기로 축제의 마지막 밤은 뜨겁기만 하다. "태권!"

수원캠퍼스 태권도 시범단의 시범 모습. 유명세 만큼이나 똑 부러진 동작 하나 하나는 관객들의 환호성을 자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다.



평생교육원 '실직자 무료교육 합니다'

8월 1일까지 실직자, 교직원, 졸업생 대상 재취업 기회 제공

평생교육원(평교원)은 지난 13일부터 실직자 무료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13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진행될 이 강좌는 IMF로 인한 실직자들에게 교육을 통해 재취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실직자나 졸업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평교원 강사 및 김한원 교수의 무료교육으로 진행되며 접수 및 문의는 평교원으로 하면 된다.

이번 강좌에 대해 이숙자 평교원 원장은 "IMF 체제 극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실직자들에 대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98년 평생교육원 실직자 재취업 무료교육 개설 강좌 및 시간은 다음과 같다.

체력관리센터 건강증진 프로그램 설명회

수원캠퍼스 체력관리센터는 오는 6월 3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2회에 걸쳐 체력관리 카드 작성과 올바른 운동 방법 및 실시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잘못된 운동이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 착안, 체력관리센터 회원과 경희가족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회원에 한하여 개인별 체력관리 카드를 지급한 뒤 카드 작성에 관한 설명회가 있으며 김명진 교수의 웨이트 트레이닝 실기 지도, 춘계 전국대학 보디빌딩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의 보디빌딩 시연회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최첨단 체력기기를 보유, 현재 약 230여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는 체력관리센터의 한달 이용료는 5000원이다. 체력관리센터의 회원이 되면 1년 1회 심도있는 운동처방을 받을 수 있다.

여자축구 도로공사배 대회 '준우승'

우리학교 여자축구부가 도로공사배 종합대회에서 준우승을 거뒀다.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대전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진 이번 대회에서 우리학교는 실업팀 인천제철에 2:0으로 아깝게 패해 2승 1패의 성적으로 준우승에 머물렀다.

울산전투대, 해브론 등 4개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우리학교 선수들은 손성미(체육 4)와 이 3골로 최다 득점 선수로, 김민정(체육 4)이 골키퍼상, 송주희(체육 3)와 이서스트 상, 박지혜(체육 2)가 수비상을 수상하였다.

'암장' 독후감 공모마감 30일로 연기

이수병 선생의 일대기를 그린 소설 '암장'의 독후감 공모 마감일이 오는 30일까지로 연기되었다. 이번 공모에서 최우수작에는 100만

서울 검도부 연맹전 3위

지난 16일 열린 '서울시 춘계 대학검도 연맹전'에서 서울캠퍼스 검도부가 공동 3위에 입상했다.

단체전 3위 입상은 96, 97년 추계전에 이어 3번째로 입상의 주역은 이준호(생물 96), 이교석(법학 96), 공창모(회계 92), 정승현(경영 93), 고정재(법학 94)군 등이다.

이 날 검도부는 성공관대, 경기대, 연세대를 차례로 누르고 준결승에 진출했으나 홍익대와 1대 1로 비겨 3위에 그쳤다.

인북위 경희강좌 열어

<제279회>

서울캠퍼스 학생인북복지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경희강좌를 개최한다.

'희망은 없다 -IMF시대의 한국사회와 대중문화의 향방'을 주제로 하는 이번 강좌는 오후 6시부터 두 시간 동안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우리 학교 학생이면 누구나 들을 수 있으며 일정은 다음과 같다.

*26일 - IMF시대의 한반도와 신자유주의 - 정운영(한겨레신문 논설위원)

*27일 - IMF시대, 우리 문화의 범고창산 - 주강현(민속학자)

*28일 - IMF와 문화향유.영화 속으로- 유인택(기독교대 대표)

우정원 모델하우스 31일까지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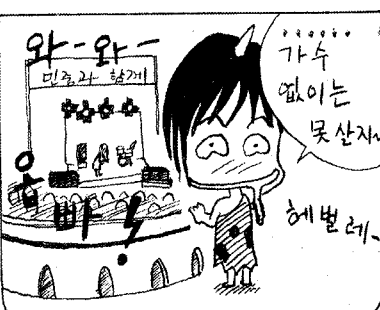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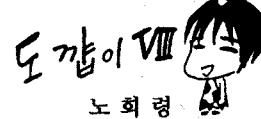
오늘부터 5월 31일까지 수원캠퍼스 기숙사 우정원의 모델하우스 개관된다. LG건설이 시공과 운영을 맡게 될 우정원은 8월 말 완공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균등한 입주기회를 제공하고 우정원의 시설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 개관되며 모델하우스는 현재 공사중인 현장에 위치하고 있다.

모델하우스는 행사기간중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학부모와 재학생을 대상으로 개방된다.

언론정보학부 주최 '국제미디어' 강연회

'국제 미디어 혁명과 문화, 태도, 통치의 변화'를 주제로 6월 1일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언론정보학부가 주최하는 강연회가 열린다.

국제 미디어 감각과 지식을 넓히려는 취지를 담고 있는 이번 강연회는 미국 볼스테이트대학의 STEVE BELL(방송학과 교수)가 강의할 예정이며 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오까지이다.



고향길

캠퍼스 소식

저천골



의상학과 작품전시회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가정대학 1층 로비 및 103호 강의실에서 의상전시회가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는 의상학과 학생들이 그린 소묘, 구성, 스타일화 등의 다양한 그림들도 전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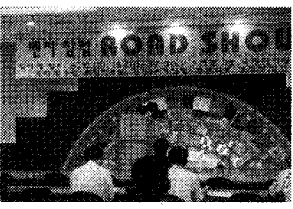
관람대 98 대동단결 체육대회 오는 27, 28일 양일간 '관람대 대동단결 체육대회'가 열린다. 배구, 축구, 농구 등의 종목으로 대운동장에서 열릴 이번 대회는 경희문화와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철학과 제 3회 콜로키움 열려 문리과대학 철학과는 오는 26일 제 3회 철학과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인도의 종교문화와 성'을 주제로 한 이번 콜로키움은 유경희 박사를 초청, 국제교육원 2층 영상매체실에서 오후 3시부터 두시간 동안 열릴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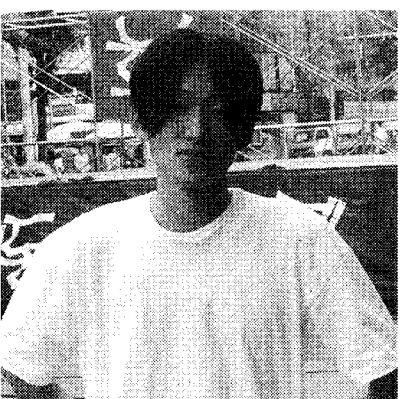
수원 예비역 다채로운 행사 진행 수원캠퍼스 제 6대 총예비역 학생회는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경희 예비역 축구 한마당'과 '경희 사랑장기대회'를 개최한다.

경희 사랑장기대회는 우리학교 학생 2인이 1조가 되어 행사에 참여하게 되며 학생회관 로비에서 진행된다. 한편 '경희 예비역 축구 한마당'은 예비역을 대상으로 선수 4명과 후보 2명으로 한 팀을 구성해 학생회관 축구장에서 경기가 펼쳐지게 된다.

'창업 ROADSHOW' 지난 22일 오후 3시 중 앙도서관 3층 피스홀에서 '벤처창업 ROADSHOW'가 있었다. 중소기업청과 취업정보실 주최 경영학부, 경희 창업연구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대학의 창업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부의 창업 지원제도와 창업 성공 사례를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 멋진 추억을
준 친구들에게 감사한다 "



"하나 되는 자리는 절대 놓치지 않아요"

98년도 대동제의 첫날 행사중의 하나였던 '신명 몸짓 한마당'에서 하나됨을 보여준 청년신방 몸짓패 단장 박정훈은

그는 먼저 "우리는 하나가 되는 자리는 절대 놓치지 않는다"며 "원래 신방과가 선배 동기들이 잘 통한다면 그러한 힘들이 이번 행사에서도 발휘된 것"이라고 자랑스러워 말했다.

"함께 하기에 우리는 진정한 청년"이라는 소개와 함께 '우리는 청년'에 호응을 맞춰 단결된 모습을 보여줬던 몸짓패는 신방과 학생회장을 포함하여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행사를 위해 일주일동안 매일 10시간의 고된 연습도 마다하지 않았던 단원들에게 '고마움 따름'이라는 박군

은 "우리가 일등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다. 우는 친구도 있겠다. 그 순간 우리를 응원하기 위해 온 많은 선배님들, 후배들 그리고 동기들이 너무나 고맙겠다"며 그 때의 감동을 다시 회상하는 듯했다.

마라톤에서도 단체상을 받았다는 청년 신방과, 정말 그들이 '하나'임을 인정해야 할 듯하다.

노력만큼의 결과로 인해 이번 축제를 정말 축제답게 보낼 수 있었다고 말하는 박군은 그러나 98년도 대동제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진지했다.

"작년보다 늘어난 외부 장사꾼들 때문에 눈살이 찌푸려졌다. 그리고 학생들이 여는 행사 역시 상업적인 것들이

많았던 점들이 아쉬웠다"면서 "또한 경희인 모두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자리가 너무 모자랐다"고 말하고는 올해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더 나은 대동제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도 잊지 않았다.

대동제의 막바지 행사인 '회기동 거리 문화제'에 초청되어 몸짓을 하고 온 탓일까. 내내 삼기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던 박군은 "우리가 또다시 이렇게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멋진 추억을 만들어준 우리에게 감사한다"는 정말 멋진 말을 남긴 채 남은 일정을 위해 어느새 저 멀리 사라졌다.

<고세희 기자>

신명 몸짓 한마당 우승팀 청년신방몸짓패 단장 박정훈 (언론정보 97)군